

유통업계, 재택·시차근무제 확대

사옥폐쇄·업무중단 방지... 유통공백 최소화 '총력'

롯데푸드 전 직원 재택근무 돌입
CJ그룹 외부인 사무실 출입 금지
롯데그룹 직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대백 2주간 2교대 재택근무 실시
신세계그룹 회의지양·이동 최소화
CJ제일제당 사옥출입시 체온체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유통업계가 직원들의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확대하고 있다. 직원 중 확진자가 나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옥 폐쇄, 업무 중단 등에 따른 사전 조치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는 본사 총무팀 소속 비서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자 판정에 따른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중이다. 또 롯데푸드는 이날부터 직원 출입 통제, 본사 건물 방역을 했다.

또 지난 27일부터는 전 직원을 대상



롯데푸드 서울 영등포구 본사 /롯데푸드

으로 재택근무에 돌입했다. 확진 판정 직원이 다녔던 본사 1층 출입구와 8층, 9층에 있었던 직원들에게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발현되거나 의심될 경우 반드시 자가 격리할 것을 권고했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2월 27일부터 사전 방지 차원에서 본사 방역을 2번 정도



CJ제일제당 사옥 /CJ제일제당

실시했고, 추가 방역도 진행할 것"이라며 "재택근무 연장 여부 등 이후 대응책은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J그룹은 다음 달 3월 말까지 집합 교육, 사내 행사 및 모임 등을 중단했다. 또 경영진들이 격려나 점검 차원에서 현장 방문하는 것도 자제하도록 조

치했다. 국내외 출장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단시켰다.

이와 함께, 직원들이 대중교통 혼잡 시간을 피해 출퇴근 할 수 있도록 시차출근제를 확대했다. 최대 4주간 활용할 수 있는 '자녀입학 돌봄 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개인별로 상황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서장 판단을 통해 재택근무 가능 인력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외부인의 단체 사무실 출입은 금지됐다.

롯데그룹은 영업직, 본사 직원을 포함한 전 임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 본사 부서 간 이동 최소화, 회의 지양, 국내외 출장 전면금지, 집합 교육 중단, 동호회 및 회식 금지, 외부인 본사 출입 지양 등을 시행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본사와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이달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2교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특별로 직원을 2개 조로 나눠 1개 조는 재택근무를 하고 나머지 1개 조는 출근하는 형태

다.

신세계그룹은 ▲임직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영업직 본사 직원 포함) ▲본사 부서 간 이동 최소화 ▲회의 지양 ▲국내의 출장 전면금지 ▲집합교육 중단 ▲동호회 및 회식 금지 ▲외부인 본사 출입 지양 등을 지시했다. 또 이마트와 SSG닷컴 직원 중 입산부에 대해서는 2주간 재택 근무 조치를 내렸다.

CJ제일제당은 본사 사옥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전 직원에 사무실 내 마스크 착용을 지시했다. KGC인삼공사도 시차출퇴근제를 확대해 8시부터 10시까지 각각 직원들이 다른 시간에 출근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사옥 출입 시에는 온도계로 체온을 필수 체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직원들의 감염을 막기 위해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확진자 발생으로 사옥이 폐쇄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kmj@metroseoul.co.kr

“대형마트서 마음 편하게 살래요” 오프라인으로 발 유희는 소비자

이커머스업계 식료품 품질·배송지연
연택트 소비 늘면서 비접촉 결제 증가

“온라인몰은 ‘품질’ 이지, 구매완료한 상품은 배송 지연이라면서 언제올지 모르고... 대형마트는 배송 걱정 안해도 되니까 마음 편히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을 기피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온라인몰 구매가 급증했다. 하지만, 폭발적인 주문량에 배송 대란이 절정에 이르자 대형마트의 안정적인 물량으로 눈을 돌린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확진자가 급증한 지난 19일 이후 이커머스는 식료품 품질 사태와 배송 지연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11번가는 지난 19~25일 전년 동기 대비 쌀 매출이 4.5배(355%) 급증했으며 즉석밥 242%, 생수 185%, 라면 42%, 냉장/냉동식품 108%, 통조림 183%, 손소독제 9771%, 화장지 67%, 세탁세제 56% 등 생필품 카테고리 상품들의 거래가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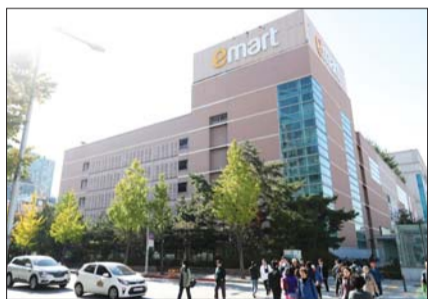
티몬은 같은 기간 라면 등 간편식 매출이 429% 늘었다. 상황이 이러하자 쿠팡과 마켓컬리 등 일부 이커머스에서는 일부 상품에 한해 품질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길어야 이틀을 넘기지 않던 배송 기간도 기약없이 길어졌다.

이에 소비자들은 넉넉한 재고를 갖춘 대형마트로 발걸음을 돌렸다.

1일 이마트에 따르면 2월 19~26일 전점 주요 생필품 매출신장률은 전년 동기(20~27일) 대비 즉석밥은 39.5%, 라면은 57.4%, 통조림 상품은 75.7% 늘



롯데마트 서울역점 /롯데쇼핑



이마트

어났다. 쌀은 56.3%, 생수는 38.2% 신장했다.

롯데마트의 식료품·생필품 매출 신장률(17~27일)은 전년 동기 대비 라면은 75.6%, 컵밥 88.4%, 쌀 67.7%, 계란 39.8%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생필품 수요가 크게 늘어나다보니 이커머스 물류창고로는 용량 감당이 안되었을 것”이라며 “대형마트의 경우 식품회사에서 납품하는 발주량 비율이 크기때문에 재고가 넉넉하다”라고 말했다.

연택트 소비가 늘면서 오프라인 쇼핑 시 비접촉 결제도 증가했다.

데이터서비스기업 롯데멤버스까지 이달 1~20일 엘포인트 거래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오프라인 유통점 전체 결제액이 전월 동기 대비 28.6%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엘페이 간편결제 취급고는 11.5% 증가했다. 매장 쇼핑 시에도 결제 시 대인 접촉을 피하고자 바코드, 음파 등으로 인식되는 간편결제를 이용한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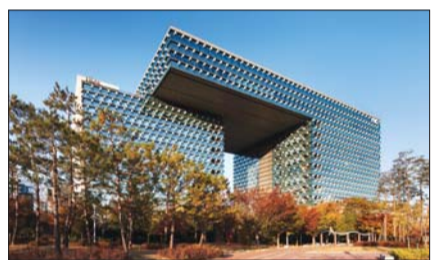
결제수단뿐 아니라 구매 품목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온·오프라인 유통점을 통틀어 건강마스크(1143.4%), 안전상비의약품세트(269.0%), 손세정제(255.5%), 주방세제(178.1%), 청소용세정제(45.5%), 일반의약품(83.7%), 체온계(78.8%) 등 건강/위생 상품 판매액이 전월 동기 대비 급증한 것.

황윤희 롯데멤버스 데이터애널리틱스부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가 급변하면서 온라인에서는 품질 사태와 컴플레인 빈번하고 있다”며 “온·오프라인 유통과 배송, 물류까지 긴밀히 연계되는 옴니채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

코로나 극복 팔 걷은 ICT업계 대리점 월세지원·대규모 성금기부 줄이어

KT 2월 한달간 전국 매장 월세 지원
LGU+ 대리점에 운영자금 25억 투입

넥슨·엔씨·넷마블 각각 20억 기부



엔씨소프트 사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통신, 게임 업계도 재택근무 체제로 돌입한 가운데 기업들의 지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1일 IT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업체들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점 돕기에 나섰다.

애초 이동통신사 대리점은 2~3월은 신학기 등이 시작되며 소형 스마트폰 출시세 성수기로 분리된다. 올해도 삼성전자의 ‘갤럭시Z플립’을 시작으로 3월 말 ‘갤럭시S20’ 시리즈가 출시됐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방문객이 줄어들어 영업 현장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는 전국 대리점 매장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KT의 경우 2월 한 달간 전국 매장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키로 했다. 피해가 심한 대구·경북 지역은 50%, 나머지 지역은 30%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2월 초부터 2회에 걸쳐 대리점 채권 여신기한 연장, 상생 지원책 강화 등 영업 정책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에 소재한 KT 대리점의 매장은 2500여개다. 이번에 지원하는 월세 및 정책 지원 금액은 2월 초부터 시행한 지원과 합쳐 총 50억원 수준에 달한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이와 함께 KT는 KT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임대료를 대구·경북 지역 50%, 나머지 지역은 20% 감면하며 소상공인 돕기에도 나서고 있다.

LG유플러스 또한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해 전국 2000여 대리점 매장을 돕기 위해 2월 매장 운영자금 25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전국 LG유플러스 대리점 매장은 대구·경북 100개를 포함해 약 2000개다. 지원 자금은 매장 운영 시 발생하는 인건비, 월세 등 비용 부담 경감에 이용된다.

게임사들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성금 기부에 동참했다. 넥슨과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국내 게임업계 상위 3개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각 성금 20억원씩을 기부했다.

넥슨은 지난달 25일 자회사 네오플과 대한적십자사에 20억원의 성금을 전달했고, 엔씨소프트는 코로나19 방역과 피해 극복을 위해 성금 20억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다. 넷마블도 최근 계열사로 편입된 코웨이와 10억원씩 성금을 출연해 20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일괄 기부했다.

특히 엔씨소프트는 PC방 소상공인 사업주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엔씨소프트는 전국 엔씨패밀리존 가맹 PC방 사업주의 3월 한 달간 G코인 사용량의 50%를 보상 환급(페이백)키로 했다.

NHN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재택근무 시행을 앞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협업 플랫폼 ‘토스트 워크플레이스 두레이’ 3개월 무상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